

중앙시장 청년몰 '청년구단' 떴다

현책방 거리 중앙메가프라자 3층 재기발달 15개 업소 영업 중

01	02
----	----

- 01 야구를 테마로 한 스포츠 펍 형태의 청년몰 '청년구단'. 카페테리아 형태로 다양한 음식과 음료를 즐기면서 곳곳에 마련된 TV모니터로 야구 등 스포츠 경기를 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 02 홍보관에는 현 간판타자인 김태균 선수의 모형과 사진을 찍는 포토존, 선수사 인품, 유니폼, 응원 도구 등도 진열돼 있다.

동구 원동사거리에 인접해 있는 중앙시장 내 중앙메가프라자. 1층은 수십 년 된 헌책방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고 3층에는 자그마한 한복점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다. '특별한' 필요에 의해 이곳을 찾는 이들을 제외하곤 오가는 이 없이 적막했던 이곳이 아주 오랜만에 들쭉였다.

지난 6월 28일 오후, 중앙시장 청년몰인 '청년구단'이 중앙메가프라자 3층에 문을 열었다. 청년구단은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들에게는 희망의 일터를 제공하기 위해 조성된 청년몰이다. 청년구단이 흥련을 치기를 바라는 많은 지역민들이 이날 메가프라자를 찾았다.

'청년구단'은 야구를 테마로 한 스포츠 펍 형태의 청년몰이다. 펍(Pub)이란, 아일랜드와 영국의 전통적인 술집을 뜻하는 말로, Public House의 약자이다. 술과 음료를 비롯해 음식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서양의 대중적인 술집을 말한다.

'청년구단'은 대전시와 동구, 중소기업청, ㈜중앙메가프라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것으로, 권선택 대전시장의 공약사업이기도 하다. 중앙시장 메가프라자 3층 660㎡ 면적에 20개 점포가 입주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되었으며 카페테리아 형태로 다양한 음식과 음료를 즐기면서 곳곳에 마련된 TV모니터로 야구 등 스포츠 경기를 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대전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예비 청년상인들을 모집하기 시작해 개장 전까지 창업·경영 교육과 타 지역 모범사례 견학, 업종 선정, 점포 계약, 실내 인테리어 등의 개장 준비를 진행해왔다. 현재 한식과 일식, 카페, 공예, 디저트, 스낵 등 다양한 업종의 15개 청년 점포가 우선 입주해 꿈의 구단을 이끌고 있다. 이 중 13개 업체가 음식점이고 2개 업체는 소공예품점이다. 청년 상인들에게는 1년의 임차료와 인테리어 비용, 컨설팅, 홍보 마케팅 등이 지원된다.

야구를 테마로 한 청년몰답게 '청년구단'에는 지역연고 프로 야구단인 한화이글스의 홍보관이 마련돼 있고 3층과 옥상에는 20여 개의 중대형 야구방송 전용TV가 설치돼 있다. 홍보관에는 현 간판타자인 김태균·이용규 선수의 모형과 사진을 찍는 포토존, 장종훈·송진우·정민철 선수 등 역대 한화가 배출한 스타 선수들을 소개한 코너가 마련되어 있고 선수사인볼, 유니폼, 응원 도구 등도 진열됐다.

청년구단 업소들은 업소명, 메뉴 등에서 청년들의 재기발달함이 그대로 묻어난다. 퓨전한식인 치즈누룽지말이와 최고기누룽지말이 등을 내세운 '놀루랄라'는 신나는 어감의 '물루랄라'에 '누룽지를 놀린다'는 뜻이 합쳐져 탄생된 그야말로 '신박한' 상호명이다. 놀루랄라를 창업한 신중섭 씨(29)는 오리고기 식당을 운영하는 어머니가 고기를 드신 후 식사를 찾는 손님들을 위해 개발한 메뉴를 벤치마킹했다. 볶음밥을 놀



운영시간
일-목 오전 11-오후 10시
금-토 오전 11시-오후 11시(월요일 휴무)